

보도일시 (인터넷) 2026. 8. 19.(수) 11:00 (지면) 2026. 8. 20.(목) 조간 배포 2026. 8. 19.(수) 06:00

공영항로 운영체계 전환 앞두고 섬 주민과 소통 나선다

- 공공위탁 운영항로 대상 17개 섬 주민간담회 개최
- 주민의견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공영항로 운영체계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안영철)은 내년 시행 예정인 공영항로 공공위탁 운영을 앞두고 운영계획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서해안의 공영항로 공공항로 위탁운영 대상 섬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9개 공영항로 중 내년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게 될 11개 항로의 17개 섬*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그간 민간선사에 위탁 운영해 온 공영항로를 공공위탁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취지와 준비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한다. 아울러, 내년 운항 일정과 운임체계,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고객 서비스 개선 사항 등 공영항로 운영 계획도 안내한다. 또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들이 실제 여객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한 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보령시 녹도, 호도, 외연도, 월도, 육도, 허육도, 추도, 소도 / 서산시 고파도 / 태안군 가의도 / 인천시 미법도, 서검도 / 안산시 풍도, 육도 / 군산시 개야도, 연도, 어청도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검토하여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과 중장기 검토 과제를 구분하고, 향후 공영항로 운영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주민과의 별도 소통 채널도 운영하여 섬 주민과 함께하는 공영항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영항로는 섬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인 만큼,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의 필요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더욱 편리한 공영항로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위탁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심상철 (051-773-5730)
담당 부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영항로준비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김희현 (051-773-5243)
		책임자	실 장	한정이 (044-330-2447)
		담당자	과 장	장용상 (044-330-2436)